

## 43:18-34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은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헌신에는 언제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헌신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헌신은 없으며 그런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 야곱의 포기에 주신 복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막다른 길목에 가지 않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것은 미리 미리 포기하십시오. 포기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선교기금을 내고 장학금을 내보십시오. 좋은 일에 자꾸 내어주면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했을 때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포기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은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포기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헌신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헌신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헌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 형제들의 ‘불안’과 ‘두려움’

이제 다른 편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좋아서 왕궁에 큰 오찬을 베풀고 형들을 초청합니다. 반면 그 초청은 형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창세기 4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죄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겁부터 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반면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하는 데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했을까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원지 모를 불안이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초대를 받은 후 ‘두려워하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력을 극대화 시킵니다.

‘우리를 붙잡아 억류시킬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져온 나귀를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실이 아닌 상상일 뿐입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고 불길한 상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실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일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복된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훔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 ~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정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 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 진실해집니다.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예전의 요셉의 형들은 살인을 하고 서모를 간음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게 될 형편에 이르자 요셉의 청지기에게까지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 회개나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점과 허물을 보게됩니다. 이것

이 시련의 의미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성화되고 승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반가와하며 자신을 밝혔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 대신인 요셉을 이용해 한 자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 구원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셨지만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피상성입니다. 가볍게 예수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나오며 자신이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곳,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난고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굶주린 자는 복이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 정직의 대가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받은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60만명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곧장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끝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겸허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목표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과 ‘순종’에 있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주십니다.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고 시므온을 돌려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 요셉과 베냐민의 해후

25,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요셉이 약속 시간에 나타납니다. 형제들과의 기막힌 해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기절할 만큼 기막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기절할 정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BC에서 AD로 뒤바뀌는 놀라운 일입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형들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요셉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29~31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가슴 속의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실컷 울고 안 그런 척하고 나옵니다.

29절에서 재미있는 표현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 베냐민만이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혈육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질이 다릅니다. 형들을 보고는 대성통곡하지 않지만 베냐민을 보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장면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볼 수 있습니다. 50년간 만나지 못한 혈육을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 전혀 표정관리가 안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읍니다. 바로 피붙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던 학생이 18명이나 참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사망 소식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실신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가슴 아픈 것과 그 부모가 가슴 아픈 정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의 자식 안된 것 보듯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불에 타서 죽어서 실신하는 부모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의 자식에겐 잘하면 축복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잘하면 칭찬을 하지만 잘못해도 감싸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 피붙이요, 내 유전자가 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없이 무한히 자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앞에서는 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조건 손해보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부동켜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32,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다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음식을 그 종교법에 따라 분리해서 먹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리가 장유유서 순서대로 배치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식탁앞에는 다른 형제들 보다 음식이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통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